

훈련 I IV.

어떤 자극에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1.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특징은 분명하다.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이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은자는 반응하지 않는다. 생명은 꿈틀거림이다. 알을 깨고 나오는 작은 생명체를 보라. 꿈틀거림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한다. 움직인다는 것이다. 태어난 아기를 보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극에 반응한다. 빛에 반응한다. 소리에 반응한다. 환경에 반응한다. 그리고 본능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배고픈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먹기위해 반응한다.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이다. 가장 존귀한 분에게 반응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 반응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특권이다. 그것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한다. 존재감으로부터 오는 기쁨, 행복,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다. 그 반응을 통해 사람안에 있는 모든 기능이 최고치로 활성화 된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존재감'에 대한 확인이다. 존재감은 삶의 의미를 나타낸다. 살아있는 이유를 말한다. 물리적인 숨이 생명을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 존재감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같은 숨을 쉬어도 삶의 의미가 없이 사는 존재들이 있다. 환경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존재감을 대변할 수 없다. 그 환경을 살고있는 내가 어떤 존재감으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삭개오의 삶을 보라. 돈이 있지만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갈등,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 결국 열등감을 말한다. (존재감이 없는 사람에게 있는 열등감은 만족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열등감은 결핍으로부터 온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오는 가장 큰 저주는 '결핍'이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그 노력이 바로 교만이다.

사람이 '하나님-신'을 경쟁의 상대로 두기 시작한 최초의 죄악이 결핍이다. 하나님과 경쟁하고자 한 사람의 죄성은 결국 영원한 결핍을 만들었다. 이것이 결국 사람의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결핍은 결국 '욕구불만'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자신과 이웃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동력이 된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사람은 그 때부터 하나님과 하늘이 아닌 땅의 것들에 반응하는 존재들이 된 것이다. 결국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삶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존본능의 반응만 남은 것이다.

2. 사랑은 반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눈이 떠지는 것이다. 거듭남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랑에 반응하는 존재, 가장 존귀한 가치에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반응이 내 삶을 정렬한다. 우선순위를 만든다. 정렬과 우선순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반응'으로 나타났다. 강도 만난자의 비유를 생각해보라. 그냥 지나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다. 진짜 사랑은 지나치지 않는다. 반응하는 것이다. 약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함께하는 것이다.

* 변화산 베드로의 반응

[마태복음 17:1-4]

- 1 그리고 몇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 2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화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 3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 4 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가 반응한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반응한다. 예수님을 모시고 이곳에 초막을 짓고 살도록 요청한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반응'했다는 것이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것에 반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다. 아름다움에 반응하도록 지음받았다.

3. 사랑과 존재감

진짜 사랑은 '존재감'을 확인시켜 준다. 진지하다는 것이다.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경청한다는 것이다. 존재감에 대한 위협이 오늘날 현대인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문제이다. 오늘날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존재감 때문이다. 예수님 앞에 설 때 모든 존재들이 삶의 의미와 자신을 찾았다.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님 앞에서 모든 존재는 섬김을 받았다. 그 섬김이 '존재감'을 분명하게 했다. 높은 자, 힘있는 자가 섬겼을 때 그 능력은 배가 된다. 에덴동산을 떠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단절'로부터 오는 외로움이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존재감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구체적이다. 실제적이다.

4. 경작의 중요성 - 경작의 원리

[창세기 2:15]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 두어 에덴을 경작하게 하셨다. 에덴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기쁨). 사람은 에덴을 경작하는 존재이다. 왜 경작해야 하는가? 그 때 에덴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 경작함에 따라 환경과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경작은 무엇일까? 그 에덴은 우리 마음안에 있다. 마음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이다. 에덴에 있었던 기쁨과, 평강과, 풍요함과, 넉넉함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이다.

5. 경작과 자극

어떤 자극에 반응하느냐가 경작의 원리에서 가장 중요하다.

좋은 자극 / 나쁜 자극이 있다는 사실 = 오늘 나는 어떤 자극에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ㄱ) 감각신경 - 뇌 - 운동신경

자극 (오감자극, 수동적자극) - 신경시스템 - 반응 (오감자극을 통해 반응하는 뇌 5%)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새로운 자극은 '상상력'을 말한다. (능동적 자극)

ㄴ) 뇌와 잔상

인간의 뇌는 이미지를 보면 일정시간 동안 무조건 기억하는 특성이 있다. 잔상이 중요하다. 어떤 잔상을 반복해서 남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내 생각과 마음을 좌우한다.

ㄷ) 자극과 기억

문자, 숫자 - 좌뇌 / 이미지 - 우뇌 = 기억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미지와 단어의 기억을 병합하면 쉽다.

ㄹ) 자극과 중독

중독의 원리는 자극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어려움이 있게되면 '해결'하고자 하는 본능이 발동한다. 이 때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 뇌는 이에 대한 해소됨을 '보상'으로 받아들인다. 문제는 뇌는 '보상'만을 기억한다는 것이다. 만약 잘못된 자극을 통해 일시적 보상을 주었다면, 뇌는 다음번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은 자극에 격렬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격한 반응이 중독이 된다.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중독이다.)

6. 어려움이 올 때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내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순간, 이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도록 '거룩한 자극'을 주어야 한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거룩한 자극이 필요하다. 그 순간 모든 공기가 바뀐다. 경쟁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 진다. 평강이 없는 그 순간을 다스려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 순간 기다렸던 마귀의 공격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두려움과 불안함이라는 문을 통해 들어와 장악한다.

* 다윗의 시편 27편

[시편 27:4]

- 1 여호와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야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 2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 3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다스려질 세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증가

[이사야 11: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됴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성경에 예언된 왕,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통해 이 세상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 모두가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존재, 반응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제 '거룩한 자극'이 내 삶에 필요하다. 경작해야 한다. 그 경작이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실제적 힘이다.